





학습내용

- [1]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 이해
- [2] 접점 데이터 수집 방법과 실습
- [3] 마케팅 데이터 인프라 구성 데모



학습목표

- ▶ 마케팅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 접점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용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마케팅 데이터 인프라를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 이해

- 1) 마케팅 데이터 분석 종류
- 2) 마케팅 데이터 분석
- 3) 마케팅 효과 분석





디지털 마케팅 분석이란?

1/마케팅 데이터 분석 종류



- 1 매출(Sales Revenues)
- 2 사이트 트래픽(Site Traffic)
- 3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Engagement)
- 4 고객 잔존율(Retention Rate)과 회원 이탈율(Churn Rate)
- 5 CPC(Cost Per Click)와 CPA(Cost Per Action)
- 6 ROAS (Return On Advertising Spend)



1. 매출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매출 데이터

매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마케팅 매출 기여도 분석도 부정확해짐

얼마나 빠르게 계산되는지도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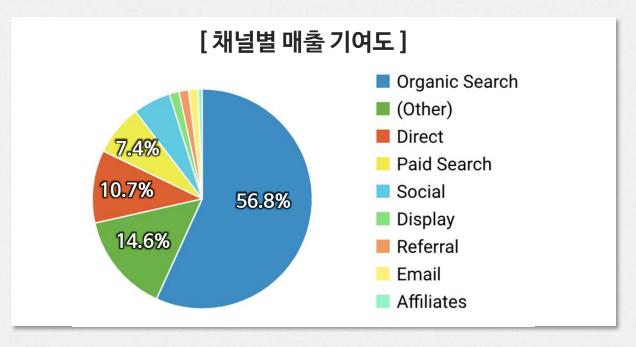


7월 매출 정보가 8월 말에 나온다면 큰 문제임



1. 매출

매출 데이터를 다양한 마케팅 채널과 캠페인에 연결함으로써 마케팅의 방향이 정해짐





2. 사이트 트래픽

또 다른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사이트 방문자 정보

구글 어낼리틱스를 통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함

방문자 트렌드 분석, 세션 트렌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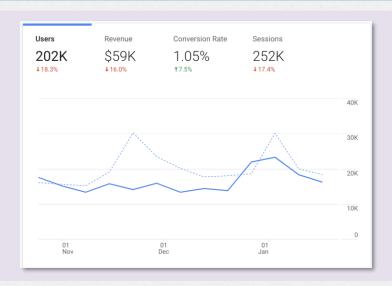
2. 사이트 트래픽

사이트 방문자 정보와 각종 마케팅 정보의 연동을 통한 분석



마케팅이 방문자 증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 채널별 분석
- ➡ 캠페인별 분석





3. 소셜 미디어 몰입도

많은 수의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은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내 사용자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함





3. 소셜 미디어 몰입도

중요한 지표는 소통율(Engagement Rate)

"좋아요"와 "답글"과 "공유"의 수를 합치고 이를 팔로우어의 수로 나눈 비율

보통 팔로우어의 수가 커질수록 소통율을 낮아짐

플랫폼별로 평균 소통율에 큰 차이가 있음

- 인스타그램이 다른 플랫폼보다는 높은 소통율을 보임(2~6%)
-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보통 0.5~1%를 보임

4. 고객 잔존율과 이탈율

마케팅으로 새 고객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만큼 기존 고객들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함



🙆 세종사이버대학교

- 4. 고객 잔존율과 이탈율
 - ❖ 고객 잔존율

고객 간존율 Retention Rate

고객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율

- 이를 기반으로 코호트 테이블을 그려볼 수 있음
- 잔존율을 마케팅 채널별 혹은 캠페인별로 분석해보면 의미 있는 인사이트 도출 가능



- 4. 고객 잔존율과 이탈율
 - ❖ 고객 이탈율

고객이탈율 Churn Rate

1 - 고객 잔존율

고객 이탈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이메일 마케팅등을 통해 재소통 시도가 가능함





4. 고객 잔존율과 이탈율

❖ 고객 잔존율

코호트월\월수	첫 번째 월	두 번째 월	세 번째 월	네 번째 월
2019-05	100	50 (50%)	25 (25%)	10 (10%)
2019-06	150	100 (67%)	50 (33%)	
2019-07	100	75 (75%)		
총수와 평균 잔 존 율	350	225 (64%)	75 (30%)	10 (10%)

1. CPC

CPC Cost Per Click

고객이 광고를 클릭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 회사가 고객의 광고 클릭 하나에 지불하는 평균 비용

> 가장 흔히 사용되는 마케팅 효과 분석 지표 중의 하나





이 방식의 문제는 실제 클릭이 구매로 이뤄졌는지 따지지 않는다는 점



- 1. CPC
 - ❖ 특정 캠페인의 CPC

CPC = 캠페인에 들어간 모든 비용/총 클릭 수

CPC가 클수록 마케팅 효과는 떨어진다고 봄

BUT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에 캠페인별로 상대비교를 해야 함



2. CPA

CPA Cost Per Acquisition

- 고객이 광고를 통해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
 - 꼭 물건 구매가 아니라 회원등록, 앱 다운로드 등의 다른 행동이 목표가 될 수 있음
- 회사가 광고를 통해 구매를 한번 하는데 지불하는 평균 비용

가장 흔히 사용되는 마케팅 효과 분석 지표 중의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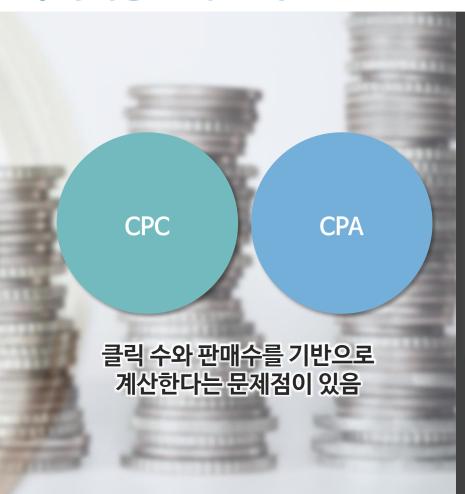
- 2. CPA
 - ❖ 특정 캠페인의 CPA

CPA = 캠페인에 들어간 모든 비용/총 판매 수

CPA가 클수록 마케팅 효과는 떨어진다고 봄

BUT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에 캠페인별로 상대비교를 해야 함





캠페인을 통해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마케팅에 더 많은 돈을 알고 싶다면 ROAS (Return On Advertising Spend)를 계산함



3. ROAS

❖ 특정 캠페인의 ROAS



= 캠페인에서 나온 모든 매출액/캠페인에 들어간 모든 비용 × 100

ROAS (1

손해

ROAS = 1

이득도 손실도 없음 ROAS > 1

클수록 좋음

접점 데이터 수집 방법과 실습

- 1) 구글 어낼리틱스
- 2) 일반적인 구성
- 3) 마케팅 접점 데이터 수집
- 4) 마케팅 접점 데이터 저장 레이어
- 5) 마케팅 접점 데이터 분석/시각화 레이어



1/구글 어낼리틱스



인력(특히 엔지니어)이 없을 경우 가장 처음 시작할 수 있는 마케팅 인프라임

무료 버전으로 시작할 수 있기에 더욱 매력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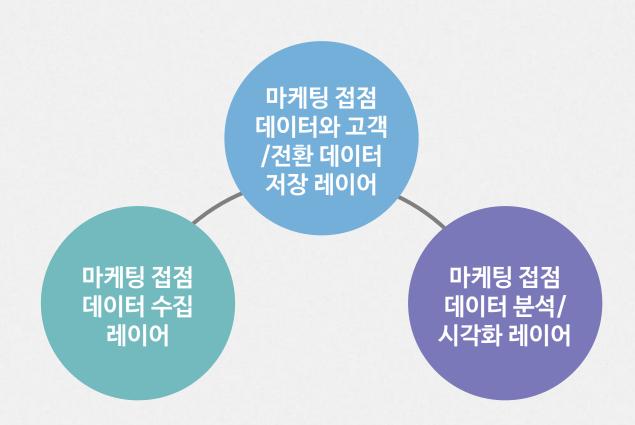
BUT 무료버전에서는 사용자별 데이터 덤프가 불가함

사이트 트래픽 분석 기능을 제공함

마케팅 채널/캠페인 기여도 분석 기능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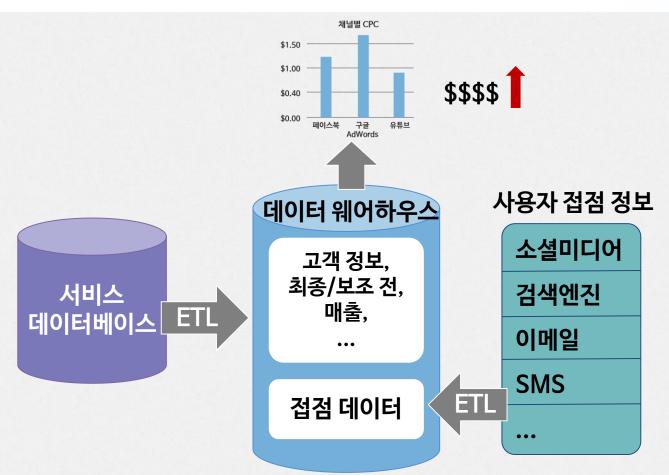
- Google Ads의 경우 Auto Tagging을 통해 더 자세히 분석함
- 다른 채널들은 UTM 기반임

어느 정도가 회사가 성장하면 다음 슬라이드의 모델로 진화하는 것이 일반적임



2/일반적인 구성





3/마케팅 접점 데이터 수집



써드파티 서비스 사용이 일반적임



3/마케팅 접점 데이터 수집



써드파티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API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함

사용자 ID, 세션 ID, 각종 UTM 정보들이 수집 대상임

SaaS 데이터 복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함

Stitch Data, FiveTran, Segment 등

4/마케팅 접점 데이터 저장 레이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필요하며 접점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를 저장함

접점 데이터

앞서 언급된 것처럼써드 파티를 통해서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임

내부 데이터

- 보통 회사내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며 아래와 같은 데이터가 필요함
- 최종 전환 데이터
 - 매출 데이터 혹은 회원 등록 데이터
- 보조 전환 데이터
- 고객 정보

데이터 웨어하우스

고객 정보, 최종/보조 전, 매출,

접점 데이터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혹은 자체 내부 사용자 ID



4/마케팅 접점 데이터 저장 레이어



접점과 내부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복사해주는 ETL이 필요함

SaaS를 사용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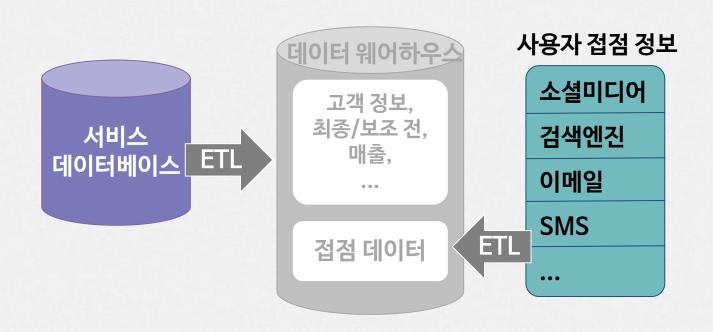
직접 ETL을 구현하는 방법

FiveTran, Stitch Data, Segment등의 툴

4/마케팅 접점 데이터 저장 레이어



접점과 내부 데이터 기반으로 마케팅 채널/캠페인 기여도를 계산함



5/마케팅 접점 데이터 분석/시각화 레이어



보통 별도의 대시보드를 통해 다양한 성능을 비교함

마케팅 접점별 성능 비교

에 페이스북과 유투브와 이메일 중 어디가 더 성능이 좋은지?

마케팅 캠페인별 성능 비교

에 다양한 타케팅과 크리에이티브들 중 무엇의 성능이 가장 좋은지?

위의 성능 비교를 다양한 고객 그룹에 수행

예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등

5/마케팅 접점 데이터 분석/시각화 레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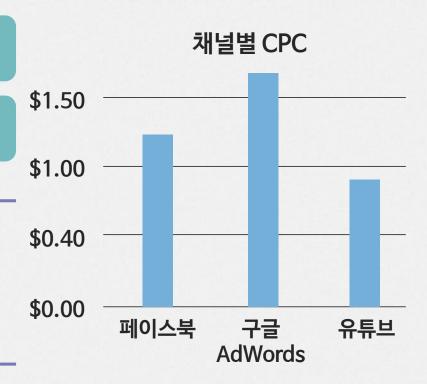
별도 CDP(Customer Data Platform)를 사용하기도 함



CDP를 통해 마케팅 캠페인 결과를 고객의 여러가지 그룹으로 나눠 분석 가능

가장 많이 쓰이는 툴

- 세그먼트(Segment)
- 암(Arm)
- 엑스포니어(Exponea)





마케팅 데이터 인프라구성 데모

- 1) 간단한 마케팅 데이터 인프라 구성 예제
- 2) 구글 어낼리틱스 기반 마케팅 데이터 인프라
- 3) Amplitude + Redshift + Stitch Data + QuickSight 데모



1/간단한 마케팅 데이터 인프라 구성 예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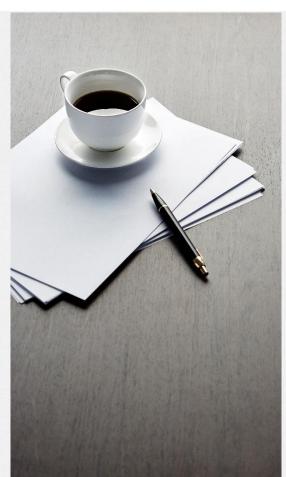
2가지의 구성 예제 보기

- 구글 어낼리틱스만 사용하는 예
- Amplitude + Redshift(AWS 데이터 웨어하우스) + Stitch Data + Looker
 - 하나의 레퍼런스 아키덱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다른 다양한 옵션이 존재)

2/구글 어낼리틱스 기반 마케팅 데이터 인프라



구글 어낼리틱스 셋업 방법 데모



마케팅 기여도 관련 리포팅 데모



Amplitude 셋업 데모

UTM과 각종 사용자 이벤트 트래킹

Stitch Data 데모

Amplitude 데이터를 Redshift로 복사하는데 사용 Redshift 셋업 데모

AWS가 제공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QuickSight 데모

QuickSight를 이용해 Redshift에 쌓인 마케팅 데이터 데모



Q1 Q2 Q3

ROAS의 계산방법은?

- 1 캠페인에서 나온 모든 매출액/캠페인에 들어간 모든 비용 ×100
- 2 캠페인에 들어간 모든 비용/총 클릭 수
- 3 캠페인에 들어간 모든 비용/총 클릭 수



Q1

Q2

Q3

ROAS의 계산방법은?

- ☑ 캠페인에서 나온 모든 매출액/캠페인에 들어간 모든 비용 × 100
- 2 캠페인에 들어간 모든 비용/총 클릭 수
- 3 캠페인에 들어간 모든 비용/총 클릭 수

정답

1 캠페인에서 나온 모든 매출액/캠페인에 들어간 모든 비용 ×100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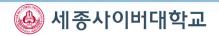
ROAS는 캠페인을 통해 돈을 벌었는지 여부를 계산하는 지표로 100이면 손익분기점이고 100보다 크면 이익이고 100보다 작으면 손해입니다.



Q1 Q2 Q3

마케팅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꼭 필요한 데이터가 <mark>아닌</mark> 것은?

- 1 접점 데이터
- 2 내부 고객 데이터
- 3 세일즈포스 데이터





Q1 Q2 Q3

- 마케팅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꼭 필요한 데이터가 아닌 것은?
- 1 접점 데이터
- 2 내부 고객 데이터
- 🧹 세일즈포스 데이터

정답

3 세일즈포스 데이터

해설

세일즈포스 데이터는 B2B 마케팅이 아닌 다음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Q1

Q2

Q3



초기 스타트업이 첫 마케팅 인프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 1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 2 구글 어낼리틱스
- 3 AWS Redshift



Q1

Q2

Q3



초기 스타트업이 첫 마케팅 인프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 1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 🛂 구글 어낼리틱스
- 3 AWS Redshift

정답

2 구글 어낼리틱스

해설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구글 어낼리틱스 무료버전으로 충분합니다.

마케팅 데이터 분석 지표

- 매출(Sales Revenues)
- 사이트 트래픽(Site Traffic)
-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Engagement)
- 고객 잔존율(Retention Rate)과 회원 이탈율(Churn Rate)
- CPC(Cost Per Click)와 CPA(Cost Per Action)
- ROAS (Return On Advertising Sp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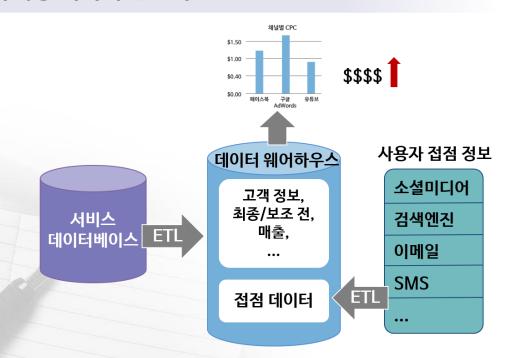


마케팅 데이터 인프라

- 마케팅 접점 데이터 수집 레이어
- 마케팅 접점 데이터와 고객/전환 데이터 저장 레이어
- 마케팅 접점 데이터 분석/시각화 레이어



마케팅 데이터 인프라



마케팅 데이터 인프라

- ▶ 구글 어낼리틱스(무료 버전)
 - 쉽게 설치 가능하고 마케팅 어트리뷰션을 대행해줌
 - 초기 스타트업에 아주 적합함
- Amplitude + AWS Redshift + Stitch Data + QuickSight
 - 좀더 전문화된 아키덱쳐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인 성장하는 기업에 적합함